

조선시대 藍種에 관한 연구

이 은 주

안동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A Study on Species of Indigo Genus Found in Chosŏn Dynasty

Eun-Joo Le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1993. 12. 30 접수)

Abstract

In several literature in China were recorded various species of the indigo genus, but in Chosŏn documents, the two have been intensively mentioned, that is, *Polygonum tinctorium*(PT) and *Isatis Tinctoria*(IT). Allowing for some slight contradictions of the record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 insist that PT is the aborigines historically longer than any other indigo plant in Korea, and that IT is the one implanted from China in late Chosŏn period.

Indigos can be grouped into two major categories : 'Chŏn' or an indigo forming sediment in the course of making, and 'Nam' or the one without.

The dyestuffs of blue, or dark blue tinged with red, which had been occasionally recorded until the mid Chosŏn, could be made from the species without sediment. The period when the color thus obtained was prevalent can be traced back to the era of Yŏngjo, when the import of blue-dyed textiles from China was prohibited to encourage the domestic dyeing industry.

However, a more clarification is needed on this matter, since all of the previous researches are arguing, with little validity, that the indigo genus in Korea be PT. Judging from the documents recording that PT did not form any sediment, and that from it was obtained only light color like indigo, it is a matter of re-discussion in terms of botanical taxonomy to define as PT the species being cultivated in some areas in Chŏllanam-do.

In conclusion, a joint research, including specialists in traditional dyestuffs and in botany in relation to the taxonomical problem of the indigo genus, would be expected for further investigation on this matter.

I. 서 론

우리 고유의 전통염료나 염색에 관한 연구는 관련학계의 지대한 관심 속에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그러한 일련의 연구들이 더욱 정확한 시각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도되었다. 우리나라의 전통복색에서 중요하게 사용되었던 청색을 얻었던 藍種(쪽)에 대해, 특히 우리나라의 남종으로

蓼藍만을 지적해 왔던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재배되어 염색에 이용되어 온 남종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藍種에 관한 실증적 고찰과 아울러 염색을 통해 얻어지는 색상의 차이 등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후일의 연구로 미루면서 본 연구에서는 문헌적 고찰에 그치고자 한다.

靑色이라 하여 모두 藍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藍으로 靑色만을 얻었던 것도 아니지만 「荀子」¹⁾에 ‘靑取於藍…’이라 하여 청색은 남에서 얻는다 하였고 조선조 「農家月令歌」²⁾ 8월令歌에서도 ‘쪽 드리고 잇 드리니 청홍이 색색이라’한 것처럼 藍으로 청색을 얻는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조선시대의 검은 색 계통에는 黑色과 女色, 皂色 등이 있었지만³⁾ 경우에 따라서는 청색이나 아청으로 표기되는 경우도 있었다.⁴⁾

한편 검은 색은 크게 두 부류로 구분되기도 하였다. 즉 ‘붉은 색을 띠는 흑색’과 ‘붉은 색을 띠지 않는 순흑색’으로 나뉘어지는 바, 전자를 ‘深靑揚赤色’, 후자를 ‘無揚赤色黑’이라고 한다. 붉은 색을 띠지 않는 순흑색은 皂色이라고 했는데 이 흑색의 염료로는 일찍부터 橡斗나 荷葉과 그 열매, 또는 泥 등이 이용되었다.⁵⁾ 한편 붉은 빛이 도는 흑색에는 靑色도 있었지만⁶⁾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붉은 색을 띠는 흑색’ 또는 ‘흑색’이라고 하면 아청색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 이 색상은 世宗代나 中宗代, 宣祖代에 거론되었던 것 처럼 우리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웠던 색이기도 했다.⁷⁾

과연 그 흑색(청, 아청)을 얻을 수 있는 염료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靑 또는 藍靑이라는 염료가 거론되는 바, ‘(중국에서는)흑색을 숭상한다…(중략)…적이 대단히 널리 사용되는데 부자가 아니면 진하게 염색할 수 없다’⁸⁾고 하였고, 또 勿頭靑色에 대해서 ‘이 흑색은 藍靑에서 얻는 것이 아니다’⁹⁾라고 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볼 때, 靑, 藍靑으로 흑색을 얻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진 또는 남천이란 과연 무엇이며 또 어떤 남종에서 얻어지는 것일까? 중국의 문헌에 나타나는 남종을 살펴 보면, 이는 바탕으로 조선조의 남종을 밝혀보고자 한다.

II. 藍에서 얻어지는 염료 어휘들

전세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含藍植物의 종류는 전세계적으로 350 여종이 넘는다고 한다. 한자문화권에서 사용되었던 남염의 원료 자체를 표기하는 어휘도 다양한 종자의 수 만큼이나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藍種 또는 藍染에 대한 중국과 우리나라의 고문헌에 기록된 어휘들을 유사 항목별로 분류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藍澱, 澱藍, 澱, 淀, 靑, 靑, 漿靑

藍澱(齊民要術, 農書, 本草綱目, 林園經濟志)

藍澱(農書)

澱(通志, 爾雅翼, 本草綱目, 天工開物)

淀(本草綱目, 天工開物)

靑(便民圖纂, 群芳譜, 直省志書, 天工開物, 增補山林經濟, 攷事新書, 林園經濟志)

靑(農桑衣食撮要, 訓蒙字會)

漿靑(天工開物)

남염에 관련된 藍澱과 澱藍, 澱 등의 어휘는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澱이란 적당기간 동안 남을 발효시켜 얻은 발효액에 석회류(礬灰, 蛤灰)를 넣어 藍의 염료성분을 가라앉혀 얻는 침전물을 말한다. 고운 진흙과 유사하기 때문에 泥藍¹⁰⁾ 이라고도 하는데, 이 澱에다 다시 갯물을 넣어 염액을 만든 후 옷감에 물을 들이게 된다.¹¹⁾

「本草綱目」의 藍澱에 관한 기록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즉 ‘藍澱의 澱이란 石澱를 말하며 淀 또는 靑이라고도 한다. 南人이 웅덩이에 남을 침수시켜 하룻밤 재운 후 石灰를 넣어 수없이 저은 후 가라앉혀 윗물을 없애면 청흑색이 되는데 이것으로 청벽색을 염색한다. 건조시켜 사용할 수도 있다. 또 가라 앉힐 때 위에 뜨는 것을 건져내어 음지에 말린 것은 靑花라 부른다’¹²⁾고 하였다.

위에 제시된 靑이라는 어휘는 藍澱을 지칭하는 남염 고유의 염료명칭으로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이기도 하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藍種에서 얻을 수 있는 청색 계통의 염료를 총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석회를 사용하여 얻는 藍澱 또는 그 種子¹³⁾를 지칭함으로써, 좁은 의미의 ‘藍’이라는 것과 상대되는

즉 중국에서는 남염의 오랜 역사 속에서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붉은 빛을 띠는 毛靑布²³⁾를 얻게 된 것이며, 중국의 문헌에서는 아청색이라는 색명이 우리나라에서처럼 많이 보이지 않지만 방법상의 내용으로 보아 毛靑布色이 바로 우리나라의 鵝靑色類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5. 頭靛, 二靛, 三靛

頭靛, 二靛, 三靛(便民圖纂, 增補山林經濟, 攷事新書, 海東農書, 林園經濟志)

문헌에 의하면 남종은 여름철과 가을철에 걸쳐 세번까지 거두어 들일 수 있다고 한다. 이 때 첫번째에 거두어 들인 남으로 만든 靛을 頭靛이라 하고, 두번째 거둔 것으로 만든 것을 二靛, 세번째 거두어 들인 것으로 만든 것을 三靛이라고 한다. 역시 석회를 사용하여 얻은 沈澱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실제 경작을 하는 경우, 보통 두번을 수확할 수 있다고 하는데²⁴⁾ 이는 기후나 토질과 같은 풍토의 차이 때문일 것이다.

6. 靛水, 전물, 뽕즙, 생뽕즙

靛水(天工開物, 林園經濟志)
전물(閑閑叢書)
뽕즙, 생뽕즙(閑閑叢書)

靛水는 鵝黃色, 頭綠色, 翠藍, 天藍, 玄色(元色), 月白, 草白, 灰色 등의 색을 얻을 때 사용되었다.²⁵⁾ 「閑閑叢書」에 남색을 얻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전물'이란 靛水에 대응하는 우리말은 아닌가 생각된다. 기록 내용에 의하면 쪽잎을 물과 열음을 넣고 갈아서 거른 염액을 말한다.

또 초록색을 얻기 위한 염료로 언급되어 있는 '뽕즙' 또는 '생뽕즙'도 그 내용상 남빛을 얻기 위해 사용했던 '전물'과 같다. 그러나 과연 靛水라고 해서 모두 남염에 열음을 넣어 갈아서 얻은 즙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7. 藍煎水, 숙남

藍煎水(天工開物, 林園經濟志)

숙남(閑閑叢書)

藍煎水란 남염을 삶은 물이다. 이를 숙남(숙남 즉 熟藍)이라고도 했다. 「林園經濟志」에 의하면 黃柏水에 先染한 후 菟藍煎水를 後染에 사용하여 草頭綠色 염색에 사용했다. 「閑閑叢書」에는 괴화나 삼뽕풀 달인 물로 先染한 후 숙남과 생쪽즙을 반반 섞어 後染하여 초록색을 얻는다고 서술하였다. 따라서 藍煎水(숙남)는 주로 녹색 계통의 염색에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열거한 것처럼 藍種에서 얻는 염료의 어휘는 상당히 다양하다. 각기 다른 어휘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고 또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경우도 있었으니 의미 파악에 주의가 요구된다.

Ⅲ. 중국 藍種

1. 중국문헌에 나타나는 藍種의 종류

우리나라의 남종을 알아보기 전에 우리의 것과 비교할 수 있는 중국 남종부터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문헌상으로 많은 종류의 남종이 등장하는 바, 남종의 종류를 많이 제시한 문헌 순으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많은 종류가 있으나 이 중에는 문헌에서도 같은 종류라고 언급된 것도 있지만 小藍과 蓼藍처럼 지역이나 기타 여건에 의해 동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²⁶⁾ 同種異名의 가능성도 있다.

2. 중국 남종의 생태적 특징

1) 蓼藍

잎 : 蓼와 비슷하다(本草綱目, 農政全書, 通志)

水蓼와 비슷하다(勝恭)

卵形이다(中國染織史)

꽃 : 5, 6월에 개화하여 이삭을 이룬다(본초강목, 농정전서)

작고 천홍색이다(본초강목, 농정전서)

홍백색이다(소송)

紅色五瓣小花이다(오숙생)

〈표 1〉 중국 문헌에 나타난 남종의 종류

種類 書名	蓼藍	菘藍	馬藍	吳藍	木藍	苧藍	茶藍	甘藍	大藍	小藍	槐藍	비 고
本草綱目	○	○	○	○	○			●				1578년, 馬藍 = 大葉冬藍, 板藍
農政全書	○	○	○	○	○			●				1639년, 菘馬藍 = 大葉冬藍
天工開物	○	●	○	○		○	○					1637년, 茶藍 = 菘藍
(蘇頌)	○	○	●	○	○							本草綱目(圖經本草, 1062년)
(勝蒸)	○	○			○							古今圖書集成, 本草綱目(爾恭)
群芳譜									○	○	○	1621년, 古今圖書集成, 小槐藍, 擘藍
直省志書	○								○		○	古今圖書集成
通志	○								○		○	古今圖書集成
爾雅翼	○	○	○									古今圖書集成
農書	○	○			○							1313년, 王禎
(陶弘景)	○	○										本草綱目(神農本草景集註)
泉州府志			○								○	中國染織史

○ 원래 제시된 종류(예 : 五種, 三種..)

● 원래 제시된 종류의 별칭인 경우 또는 부가적으로 언급된 남종

씨앗 : 요와 비슷하다(본초강목, 농정전서, 통지)

蓼子和 비슷하다(소송)

大黑色이다(소송, 승공)

씨로 파종한다(천공개물)

種藝 : 인가 곳곳에 있다. 3, 4월에 파종한다(소송, 승공)

5, 6월에 결실한다(소송)

세 번 벨 수 있다(본초강목, 농정전서)

기타 : 不堪作澱하여 靑色을 염색한다(소송, 승공)

澱을 만들지 못하고 靑色만 염색할 수 있다(본초강목)

각각의 藍이 다르지만 澱을 만드는 것은 같다(본초강목)²⁷⁾

세 남(蓼藍, 大藍, 槐藍)이 모두 澱을 만든다(통지)²⁸⁾

한방에 사용한다(본초강목, 소송)

蓼와 비슷하지만 맵지 않다(본초강목)

靑色을 염색한다(통지)

2) 菘藍

잎 : 白菘과 비슷하다(본초강목, 농정전서)

잎 둘레가 2촌, 두께가 3,4분이다(본초강목)

卵形이다(오숙생)

꽃 : 십자형의 黃花이다(오숙생)

두 남(송남, 마남)의 꽃은 요남과 비슷하다(본초강목)

기타 : 오로지 靑色을 염색한다(이야익)

靑靑을 염색한다(본초강목)

'爾雅'에서 말하는 침마남이다(소송)

높이는 2,3척이고 일명 大靑이라고 한다(오숙생)

3) 馬藍(大葉馬藍)

줄기 : 2,3척이다(오숙생)

큰 것은 마남이고 작은 것은 피남이다(泉州府志)

잎 : 苦賣와 비슷하다(본초강목, 농정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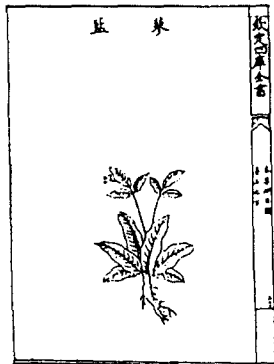


그림 1) 蓼藍(본초강목)

揚州에 馬藍의 일종이 있는데 고매와 비슷하다(소송)

大葉冬藍이다(농정전서, 이아익, 본초강목)

속칭 板藍이라고 하는 것이다.(본초강목)

잎이 큰 것을 특별히 마남이라 한다(이아익)

무릇 사물 중 큰 것에는 대부분 '馬'를 붙인다(이아익)

꽃 : 두 남(송남, 마남)의 꽃은 요남과 비슷하다(본초강목)

綠色 꽃이다(오숙생)

씨 : 씨를 뿌려 파종한다(천공개물)

뿌리 : 敗血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소송)

기타 : 6월에 冬藍을 파종한다(이아익)

馬藍을 木藍, 槐藍이라고도 한다(오숙생)

마남과 오남은 분류하기 어렵다(본초강목)



그림 2) 馬藍(본초강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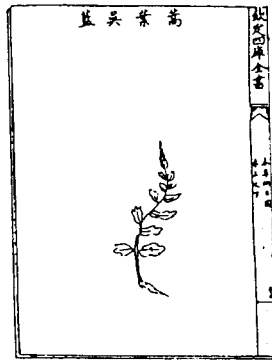


그림 3) 吳藍(본초강목)

4) 吳藍(蒿葉吳藍)

줄기 : 줄기가, 길다(본초강목, 농정전서)

잎 :蒿와 비슷하다(본초강목, 농정전서)

蒿와 비슷하고 잎이 푸르다(소송)

꽃 : 꽃은 희다(본초강목, 농정전서, 소송)

기타 : 吳人이 키운다(본초강목)

江寧에 吳藍의 일종이 있다(소송)

2월에 싹이 튼다(송공)

씨로 파종한다(천공개물)

해열, 해독제로 사용한다(소송)

마남과 오남을 분류하기 어렵다...(중략)...

옛날에는 오남이라고 했던 것 같다(본초강목)

5) 木藍(槐葉木藍)

줄기 : 긴 줄기가 決明과 비슷하다(본초강목, 농정전서)

잎 : 槐와 비슷하다(농정전서)

槐葉과 비슷하다(본초강목)

布葉이다(본초강목)

잎 둘레가 2촌, 두께가 3,4分이다(이아익)

크기 : 큰 것은 3,4척이다(본초강목)

꽃 : 7월에 담홍색 꽃이 개화한다(본초강목, 농정전서)

씨 : 꼬투리가 길고 씨는 馬蹄決明子와 비슷하다(본초강목)

기타 : 冬藍은 木藍이다(이아익)

嶺南에서 하는데 약용으로는 사용하지 않는다(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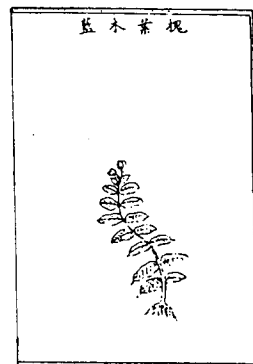


그림 4) 木藍(본초강목)

6) 茶藍

다남 곧 송남이다(천공개물, 泉州府志)

뿌리를 꽃아 살린다(천공개물)

閩人이 산에서 기른다...(중략)...

가장 아름다운 것을 標欄이라 한다(천공개물)

7) 大藍

잎과 줄기 : 芥와 비슷하다(통지)

蒿와 비슷하다(群芳譜)

白菜, 약간 좁고 뽕색한 淡粉靑色의 줄기와 잎이다(농정전서)

꽃 : 작은 黃花이다(농정전서)

씨 : 작은 꼬투리에 흑색의 씨가 있다(농정전서)

기타 : 벽색을 염색한다(통지)

澱을 만든다(통지)

菘藍이라고 하고 또 馬藍이라고도 한다(농정전서)

8) 小藍

줄기 : 적색이다(군방보)

잎 : 녹색이다(군방보)

9) 槐藍²⁹⁾

잎 :槐와 비슷하다(통지)

槐葉과 비슷하다(군방보)

기타 : 꽃에서 염색한다(군방보)

청색을 염색한다(통지)

澱을 만든다(통지)

크고 높은 곳이 마남이고 작은 것이 괴남이다

(천주부지)

10) 기타

板藍 : 꽃과 씨는 요남과 비슷하다(본초강목)

板藍은 청되, 大藍이다(훈몽자회)

萹藍 : 小葉萹藍이다(천공개물)

甘藍 : 먹을 수 있다(본초강목, 농정전서)

大葉冬藍종류이다(본초강목)

크고 두꺼워 삶아 먹으면 맛있다(본초강목)

겨울이 지나면 봄에 다시 핀다(본초강목)

꽃은 황색이다(본초강목)

씨는 각지에 맺는다(본초강목)

擘藍 : 芥藍의 일종이다(군방보)

먹을 수 있다(군방보)

8,9월에 뿌리와 잎을 거두는데 뿌리는 껍질을

벗겨 먹는다(군방보)

잎은 菘처럼 크다.

북방에서 전을 만들어 염색하면 福靑보다 낫다

(군방보)

과종은 아무때나 가능하고 뿌리를 심는다(군방보)



그림 5) 甘藍(본초강목)

위의 제시한 항목들의 경우, 어떤 남종에 대해서는 기록들 간에 일관성이 없는 것도 있다. 이는 撰者들이 일부 남종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거나 아니면 종류가 많아 의견이 정리될 수 없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큰 흐름은 파악할 수 있다. 즉 萹藍처럼 澱이 생기지 않는 남종을 小藍이라고도 하였고 그것으로는 주로 靑色³⁰⁾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외 松藍, 馬藍, 吳藍, 木藍, 茶藍, 槐藍 처럼 澱이 생기는 남종은 大藍이라고 하였으며 벽색보다 짙은 청색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국문헌에서 요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아 澱을 이루는 大藍類보다는 澱을 이루지 않는 小藍類인 萹藍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IV. 조선시대 藍種

1. 조선조 문헌에 나타나는 남종

중국의 경우와는 달리, 우리나라의 남종에 대한 문헌기록은 대략 두 종으로 분류되었다. 각 기록의 어휘가 다소 다르기는 해도 대체적으로 '澱이 생기는 種(大藍, 菘藍)'과 '생기지 않는 種(小藍, 萹藍)'으로 구분될 수 있다. 그 남종들을 분류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萹藍은 우리나라에서 오래 전부터 남염에 이용되어 왔던 재래종 染草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헌적 자료에 의하면 澱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靑色만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고, 그와는 반대로 松藍은 澱을 형성하기 때문에 벽색보다 짙은 청색을 염색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 짙은 청색(아청, 흑)을 염색하는 염료는, 이미 서론에서 지적했듯이 조선조의 宣祖代까지는 국내에서는 구하기 어렵다는 기록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조선조 중기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중국의 염료나 직물을 사다가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염료를 얻을 수 없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을 만드는 남종이 국내에 없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방법을 몰랐기 때문인가. 근원적인 문제는 그 남종의 전래가 늦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적인 경작과 관련된 기록은 英祖代 이후의 문헌에서 보이는 바, '鄉藍種(쪽藍)과 '唐藍種(당쪽靛)'으

〈표 2〉 조선조 문헌에 나타난 남종의 종류

種 類 書 名	不澱藍類(小 藍)	澱 藍 類(大 藍)	비 고
訓蒙字會	족, 小藍, 蓼藍	청덕, 大藍, 板藍	1527년, 두 종류를 통칭 藍이라고 함
尙方定例	鄉藍種	唐藍種	1752년, 英祖 命撰
增補山林經濟	藍(족)	전(청덕)	1766년, 柳重臨
攷事新書	種藍	種靛	1771년, 徐命膺
海東農書	蓼藍(족)	菘藍(청덕)	1798년, 徐浩修
閩閩叢書	쪽	당쪽	1815년, 憑虛閣 李氏
林園經濟志	蓼藍	菘藍	1827년경, 徐有槩

로 구분되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당시에는 당남종이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특히 英祖代에 내려진 紋緞禁止令이나 燕京에서 수입해 오던 靑染布를 금하고 청색으로 염색된 국내산 면포를 사용하게 한 일련의 사정등을 고려해 본다면³¹⁾ 늦어도 18세기 영조대에는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도 18세기에 비로소 전래되었다³²⁾고 하니 이 시기 추정이 전혀 근거없는 것은 아닐 듯하다. 따라서 宣祖代까지는 없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적어도 唐藍種의 전래 시기는 17세기 초에서 18세기 영조대 사이로 좁혀질 수 있다.

한편 늦게 전래된 당남종과 한반도에 이미 있었던 향남종, 즉 요남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 현재 전라남도 지방에서 행해지고 있는 남염에는 석회를 사용하여 藍澱을 얻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남종이 과연 요남인지,³³⁾ 만약 요남이라면 왜 적지 않은 문헌에서 요남은 澱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는지, 그 후에 요남으로 전을 이루는 방법이 개발된 것인지, 이 모두 풀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에 덧붙여 조선조의 요남과 송남은 현대 식물분류학의 분류와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 볼 필요도 있다. 이미 선행연구에서 남종 분류에 대한 개괄적인 자료를 제시한바 있다.³⁴⁾ 그 분류에 따르면 요남은 *Persicaria Tinctoria* 또는 *Polygonum Tinctorium*이라 하니 여뀌과(마디풀과)에 해당하는 것이고, 송남은 *Isatis Tinctoria* 또는 *Isatis Indigotica*라고 하니 十字花科의 大靑屬에 속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2. 조선조 남종의 생태적 특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나라의 남종으로는 두 종

류가 거론되고 있다. 하나는 種藍(小藍, 澱이 생기지 않는 종)이고 다른 하나는 種靛(大藍, 澱이 이루어지는 종)이다. 이들 각각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남종은 蓼藍과 菘藍이다. 이들의 생태적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蓼藍(小藍, 種藍, 藍, 쪽, 여뀌과, *Polygonum, Persicaria*)

요남은 간단히 쪽 또는 藍이라고도 하고 또는 浙江大靑이라고도 불린다.³⁵⁾ 여뀌과(마디풀과, *Polygonum, Persicaria*)의 1년초로서 북반구에만도 60여 종이 있고 우리나라와 일본 등지에도 4-6종이 분포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唐에서 전래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고구려 승려인 담징이 한반도의 것을 전해 주었다고도 하니³⁶⁾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에 이미 도입되어 재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藍은 높이가 50-60cm이고 줄기는 홍자색이 돈다. 잎은 어긋나면서 나고 잎자루가 짧으며 긴 타원상 피침형, 긴 타원형 또는 난형이고 양 끝이 좁으며 마르면 검은 빛이 도는 남색이다. 턱잎은 膜質이고 가장자리에 털이 있다. 꽃은 8-9월에 적색으로 피며 穗狀花序는 윗부분의 葉腋과 원줄기 끝에 달리며 꽃이 밀생하고 화피는 길이 2-2.5mm로서 5개로 길게 갈라지며裂片은 倒卵形이다. 수술은 6-8개이고 화피보다 짧으며 수술대 밑에 작은 선이 있고 꽃밥은 연한 홍색이며 씨방은 난상 타원형으로서 끝에 3개의 암술대가 있다. 열매는 瘦果이고 화피로 싸여 있으며 세모진 난형이고 길이 2mm 정도로서 흑갈색이다. 잎을 남색염료로 사용한다³⁷⁾고 설명된 바 있다.

2) 菘藍(大藍, 靛藍, 청디, 大靛, 십자화과, *Isatis*)

菘藍(*Isatis Tinctoria*, *Isatis Indigotica*)은 十字花科 또는 蓴臺科의 大靛屬³⁸⁾에 속하는 남종으로 茶靛 또는 江南大靛이라고도 불리운다³⁹⁾. 이 大靛屬도 현재 세계적으로 60여종이 알려져 있는데, 학자마다 견해가 다소 다르기 때문에 좀처럼 분류가 용이하지 않은 분류군이다.

이 藍은 두해살이 풀로서 중국이 원산지라고 하는데, 줄기 높이가 70cm 가량으로 잎은 어긋나게 난다. 아래쪽 잎은 卵狀披針形으로 잎자루가 있고 위쪽의 잎은 뒤로 갈라져 줄기를 싸고 있는데 봄과 여름에 노란 십자화가 총상 꽃차례로 지나나 줄기 끝에 핀다. 열매는 해독제, 해열제로 쓰이고⁴⁰⁾ 1.5cm 정도 길이의 긴 타원형의 꼬투리에 맺힌다.

이렇게 문헌상에 제시된 자료를 근거로 외관상의 차이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우선 꽃색에 있어서 요남은 천홍색인데 반해 송남은 노란색이다. 들췌, 꽃모양은 요남의 잎이 다섯장으로 갈라져 있는데 반해 송남은 네 장으로 되어 있다. 세췌, 씨는 요남의 경우 꽃 속에 맺히는 반면에 송남은 따로 긴 타원형의 깍지 안에 맺게 된다. 그러나 전체적인 구조나 모양새에는 두드러진 차이가 없을 뿐 아니라 유사한 종류가 많기 때문에 문헌상에 열거된 차이가 과연 요남과 송남의 식별 변인이 될 수 있을런지는 의문이다.

3. 조선시대 남종의 靛法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두 藍種의 형태적 차이는 미소한 편이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靛書⁴¹⁾를 중심으로 농법에 차이가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문에 제시한 靛法의 명칭은 본 연구자가 참조한 문헌 중에서 해당 기록이 가장 먼저 언급된 책명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1) 蓼藍(小藍)

(1) 農桑衣食撮要法

평지가 적당하다. 3월에 땅을 잘 갈아 파종한 다음 굽어서 고른다. 역새밭로 덮고 매일 아침 물을 준다. 싹이 나오면 밭을 제거하고 네 치 정도 자라면 비옥한 땅에 이랑을 만들고 다섯 치씩 떨어뜨려 구멍을 내어 심는다. 땅이 척박하면 糞清水를 한 두 차례 준다. 호미질은 다섯 차례 하는 것이 좋다.⁴²⁾

(2) 群芳譜法

小藍은 前 해의 가을과 臘月, 3월에 각각 땅을 갈아야 한다. 한 차례 평평하게 손질하여 씨를 뿌린 후 이리 저리 서너 차례 고른다. 잎이 다섯 장 정도 나면 곧 호미질 한다. 풀이 있으면 다시 호미질 한다. 5월에 뿌리를 남기고 자른다. 다시 크기를 기다려 또 벤다. 8월에 개화하여 씨를 맺으면 거둔다. 오는 3월에 이를 파종한다. 파종법은 菘藍과 동일하다.⁴³⁾

(3) 閨閣叢書法

심은 후 밭을 덮었다가 싹이 난 뒤에 밭을 걷어라. 자라면 옮겨라.⁴⁴⁾

2) 菘藍(大藍, 靛藍)

(1) 群芳譜法

(菘藍은) 땅을 잘 갈아 파종하며 고무래로 고르게 한 후, 위에 荻簾을 덮고 매일 일찍 물을 준다. 새 싹이 나오면 밭을 제거하고 길이 네 치 정도 자라면 비옥한 밭에 옮겨 심는다. 서너 가지를 한 구멍에 심는데 다섯 치씩 떨어뜨려 심는다. 땅이 건조하면 서둘러 호미질 한다. 호미질을 다섯 번 정도 한다. 척박하면 糞水를 한 두 차례 뿌린다. 7월에 거두어 靛을 만든다.⁴⁵⁾

(2) 齊民要述法

靛地는 세 번 곱게 갈아야 좋다. 3월 중에 浸子하여 밭아하면 밭에 심는다. 잎이 석 장 나오면 물을 준다. 새벽과 밤에 다시 물을 준다. 김매기는 정갈하게 한다. 오월 중에 新雨가 내리면 젖었을 때 곧 뽑는다. 새 줄기를 한 단위로 하여 8촌씩 떨어뜨려 심는다. 심을 때 땅이 습하면 호미질을 서두르지 말며 남을 곱게 세우도록 한다. 호미질은 5번 정도가 좋다.⁴⁶⁾

(3) 農桑衣食撮要法

前年 8,9월 간에 미리 경지를 갈아서 평평하게 고른다. 臘月에 다시 간다. 파종 때에 다시 갈아 씨를 뿌린다. 이리 저리 3,4회 굽어준다. 잎이 너댓 장 나면 곧 호미질을 하는데 풀이 있으면 다시 한다. 5월에 이르러 수확하여 打靛한다.⁴⁷⁾

(4) 便民圖纂法

정월 중에 포대에 씨를 담아 물에 담궈 싹이 트면 땅에 뿌린다. 위에 糞灰를 덮고 잎이 나오면 물과 糞을 준다. 길이가 2촌 되면 분재가 가능하다. 곧 물과 糞을 준다. 5,6월 더운 날에 잎 위에 糞水를 대 여섯 차례 뿌린다.⁴⁸⁾

요남과 송남을 구분하여 농법을 살펴 보았지만 대부

명칭도 있었다.

한편 중국 문헌에는 여러 종류의 남종에 대해 언급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조선조 문헌에는 대체로 요남과 송남으로 집약된다. 좀 더 포괄적으로 분류한다면 문헌 「增補山林濟」나 「攷事新書」의 분류처럼 크게 澱이 이루는 '靛'과 澱이 이루지 않는 '藍'으로도 분류된다. 이는 大藍과 小藍으로도 분류될 수 있다. 또 唐藍種과 鄉藍種으로도 표현되었다. 특히 두 종류 중에서 宣祖代까지도 우리나라에서 구하기 어렵다고 거론되었던 청(혹)색, 즉 붉은 빛이 도는 아청색의 염료는 澱을 이루는 남종인 大藍에서 얻었던 靛이라는 것이었다.

서로 어긋나는 기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요남(*Persicaria Tinctoria*)은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었던 남종의 하나였음을 알 수 있었고 또 중국이 원산지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의 역사도 유구하므로 우리나라의 토종 쪽줄이라고 할만 하다. 한편 송남(*Isatis Tinctoria*)는 조선조 후기에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남종으로 추정되었는데 정착된 시기는 대략 18세기로서, 중국의 靑布 수입을 금하고 국산화를 꾀하고자 했던 英祖代라고 추정되었다.

따라서 기존연구들의 대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남종을 요남인 것으로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즉 요남은 침전물이 생기지 않고 남색과 같은 얼은 색만 염색할 수 있다는 여러 기록을 볼 때, 전남 나주 등지에서 재배되는 澱을 이루는 남종을 蓼藍이라고 규정짓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규명을 위해서 전통염색 연구자들과 식물학자들과의 분류학적인 재검토를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남종이 여전히 요남이라고 한다면 왜 많은 문헌에서 澱이 생기지 않는다고 했는지, 또 어떠한 방법이 요남의 침전을 가능하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상의 미비점은 문헌중심 연구의 한계라고 여기면서 앞으로 실증적 연구를 통해 보충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1) 「荀子」卷第一 勸學篇第一, 臺北: 中華書局, 1(1974)
- 2) 丁學游, 「農家月令歌」(1816)
- 3) 崔世珍, 『訓蒙字會』 叡山本 中 色彩 黑, 玄, 帛, 東洋學研究所 影印本 92(1979). '黑 거믄 흑, 玄 가믄 현, 皂 거믄 조'
- 4) ①金永淑, '韓國 服飾史에 나타난 傳統色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2-206(1988) ②金用淑, '文獻을 통해 본 傳統色彩名', 국립현대미술관 편, 『한국전통표준색명 및 색상: 제1차 시안』, 87(1991) ③拙稿, '한국전통표준색에서의 청색과 흑색: 청색의 범주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제18권 1호 (1994)
- 5) 李良燮, '植物에 의한 黑色染 研究(1)', 建國大學校附設 生活文化研究所 『研究報告』, 第14輯, 115-133(1991)
- 6) 許愼, 『說文解字』第四篇 玄, 臺北: 黎明文化事業公社, 161(1985). '…黑而有赤色者爲元…(中略)…鄭注周禮曰元色者在縲緇之間 其六入者…'
- 7) 『世宗實錄』22年 10月 己亥 '禮曹判書閔義生啓 禁止 朝士 既着靑衣 染價甚重…' 『中宗實錄』13年 9月 甲子 '…我國服色…(中略)…時服靑衣 而非我土產 勢不得常着…' 『中宗實錄』14年 6月 辛未 '…黑色 非我國所產 而不可常着…' 『宣祖實錄』26年 6月 庚子 '…我國服色 黑色難備 姑去之' 『宣祖實錄』34年 6月 甲戌 '…冠服 制度 一從天朝可矣 上曰 黑難紅易乎…'
- 8) 『燕行錄選集』 薊山紀程, 卷之五, 附錄 衣服
- 9) 「天工開物」諸色資料, 『古今圖書集成』 第77卷, 94
- 10) 泥藍의 수분을 제거하여 藍澱(농축된 紺色의 응고물)을 얻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三木産業(株)技術室(編), 『藍染めの歴史と科學』, 東京: 裳華房, 36(1992)
- 11) 남염의 방법에 대해서는 李良燮(1983)와 金芝希(1993)의 연구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①李良燮, '韓國傳統藍染의 比較研究', 建國大學校 附設 生活文化研究所, 『研究報告』, 47-79(1983) ②金芝希, '染科 植物栽培 및 染織物 製作에 관한 研究', 曉星女子大學校 附設 產業美術研究所, 단행본(1993)
- 12) 李時珍(1569), 『本草綱目』 卷十六, 藍澱條, 影印 文淵閣四庫全書, 第772卷 237(1988)
- 13) ①柳重臨(1766), 『增補山林經濟』 卷之六 治圃 藍條/靛條, 『農書』 III,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446-447(1981) ②徐命膺(1771), 『攷事新書』 卷之十 農圃門 上 種藍條/種靛條, 『農書』 V,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393-395 (1981)
- 14) 崔世珍(1527), 『訓蒙字會』 叡山本 中 色彩 黓, 東洋學

- 研究所 影印本 92(1979). '청덕 면 大藍作之 所以染青 亦作靛 通作靛'
- 15) 金永淑, 앞글, 195(1988)
 - 16) 경북 칠곡군 북삼면 송오 3동에 거주하시는 69세의 신말한 할머니의 제보에 의하면 일제시대에 반물이라는 물감을 구입하여 물에 풀은 후 소금을 넣고 옷감을 넣어 삶으면 새카맣게 염색되었다고 하신다.
 - 17) 李時珍(1569), 앞책, 237(1988)
 - 18) 崔世珍(1527), 앞책, 92(1979), 한편 『本草綱目』의 釋名에는 '黛란 원래 눈썹색을 말하는 것인데, 눈썹을 없애고 이것으로 대신 그렸다고 하여 그 글자가 만들어졌다'고 기술되어 있다.
 - 19) 李義鳳(1789), 『古今釋林』 三十 · 釋織 大藍, 亞細亞文化社 影印本, 175(1974)
 - 20) 徐榮輔·沈象全(1808), 『국역 萬機要覽』 財用編 三, 戶曹貢物別務一年工價, 민족문화추진회, 228-233(1986)
 - 21) 權丙卓, '李朝末期의 農村織物手工業研究', 嶺南大 産業經濟研究所, 208-209(1969)
 - 22) 『欽定古今圖書集成』 七十七卷 考工典 上, 第九卷 染工部彙考, 「天工開物」 諺科
 - 23) 毛青布라는 면직물은 요즘에도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李廷芝 外 編, 『中國服飾大辭典』, 北京: 山西人民出版社, 41(1992) 참조
 - 24) ①남기연, '이제야 찾아낸 우리 때깔: 선인들의 슬기로운 지혜 속에 숨쉬어온 쪽빛', 아름다운 우리웃, 172(1993.5) ②金芝希, 앞글, 268(1993)
 - 25) 『天工開物』 諸色資料條와 『林園經濟志』 織衫條에 각 색채의 염색법이 기록되어 있다.
 - 26) 崔世珍(1527), 『訓蒙字會』 叢山木 草卉 藍, 35(1979), '藍 죽남 俗呼所藍 方書云蓼藍又淸덕曰大藍 方書曰板藍'
 - 27) 『本草綱目』의 이 기록이 우리나라의 남종을 요남이라고 단정짓게 한 근거로 보인다. 그러나 동일 책 속에서도 상반된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니 이 항목에 대해서는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
 - 28) 다른 문헌들이 거의 蓼藍은 沈澱을 만들 수 없다고 한 데 비해 『本草綱目』과 더불어 『通志』에는 蓼藍으로 澱을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있으니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조의 『林園經濟志』에도 요남은 전을 이루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 29) 『群芳譜』에는 '小槐藍'으로 기록되어 있다.
 - 30)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藍色이라고 표현되었다.
 - 31) 李良燮, 앞글, 56(1983)
 - 32) 紫田桂太, 『資源植物事典』, 東京: 北隆館, 904(1957)
 - 33) 대부분의 자료에서 우리나라의 남종을 요남으로만 지적하고 있다. ①高麗大學校 民族文化研究所 편, 韓國民俗大觀 2: 日常生活, 衣食住, 340(1980) ②李良燮, 앞글, 64-68(1983) ③趙孝淑, 朝鮮時代의 傳統染色法研究: 閨閣叢書를 중심으로,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5(1984) ④이의정, 韓國의 傳統染色에 관한 研究, 『生活科學研究誌』, 第七卷, 淑明女大 生活科學研究所, 115-116(1992) ⑤金芝希, 앞글, 152(1993). 단 이 논문에서는 다른 남종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34) 金芝希, 앞글, 152(1993)
 - 35) 三木産業(株)技術室 編, 앞책, 7(1992)
 - 36) 紫田桂太, 앞책, 904(1957)
 - 37) ①『동아세계대백과사전』 제25권 쪽, 동아출판사, 271(1980) ②李昌福, 『大韓植物圖鑑』, 郷文社, 310(1980)
 - 38) 李良燮, 앞글, 60(1983)
 - 39) 三木産業(株)技術室 編, 앞책, 7(1992)
 - 40) 신기철, 신용철 편지, 『새우리말 큰사전』 上, 요남, 841(1984). 이 사전에는 요남項目에서 대청(송남)을 설명함으로써 오류를 범하고 있다.
 - 41) 『增補山林經濟』나 『海東農書』, 『林園經濟志』 등의 조선시대 중후기 農書들은 중국의 농서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풍토나 기후 조건을 배려하여 선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金容燮, 『朝鮮後期農學史研究』, 一潮閣, 235-368(1988) 참조
 - 42) 중국 문헌 『農桑衣食撮要』 卷上 種藍과 조선조 문헌 『增補山林經濟』 卷之六 治圃藍(쪽), 『攷事新書』 卷之十 農圃門 上 種藍, 『海東農書』 卷三 草類 蓼藍(쪽)의 재배법 내용은 유사하다.
 - 43) 『林園經濟志』 晚學志 卷五, 雜類, 蓼藍의 기록은 「群芳譜」 小藍의 기록을 참조한 것이다.
 - 44) 『閨閣叢書』 권지삼 슈치법, 藍條, 요남이나 송남의 구분이 없다.
 - 45) 『林園經濟志』 晚學志 卷五 雜類 蓼藍에는 「群芳譜」 大藍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 46) 『齊民要術』 卷五 種藍에 기록된 방법이 중국 문헌 『農桑輯要』 卷六 藍, 『農書』 卷十 藍, 『農政全書』 卷

- 四ノ藍과 조선조 문헌 『海東農書』 卷三 菘藍, 『林園經濟志』 晚學志 菘藍 등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齊民要術』의 藍이 요남이 아님을 알 수 있다.
- 47) 『增補山林經濟』 卷之六 治圃 菘, 『攷事新書』 卷之十 盤圃門 上 種菘, 『林園經濟志』 菘藍에 동일한 내용이 보인다.
- 48) 『攷事新書』 卷之十 盤圃門 上 種菘, 『海東農書』 卷三 草類 菘藍, 『林園經濟志』 晚學志 菘藍도 동일하다.
- 49) 金芝希, 앞글, 151-154(1993). 김지희 교수는 자신이 현재 재배하고 있는 남종을 일단은 요남이라고 보고 있지만 다른 남종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음에 따라 식물생태학적 확인의 필요성을 아울러 지적하고 있다.
- 50) 남기연, 앞글, 172-173(1993.5)
- 51) 無形文化財調査報告書 第四十八號(1968년)를 인용한 石宙善, 韓國服飾史, 寶普齋, 149(1980)
- 52) 金芝希, 앞글, 389-396(1993)